

한국  
선진화 프로그램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고요?

청년대학생들이 제작한  
선진화 카드뉴스

芝巖 선진화 아카데미  
JIAM KFP ACADEMY

# 차 례

## 선진화 카드뉴스 1: 자유주의·시장경제이념의 확산

1. 제 19 호 - 최저임금 올리지 마세요!
2. 제 28 호 - 노키아의 교훈
3. 제 31 호 - 너의 성적이 아주 우수하니 벌을 받아야겠구나 - 대기업 규제의 족쇄
4. 제 32 호 - 키워드로 알아보자, 한국경제
5. 제 34 호 - 의지로 일군 한강의 기적, 芝巖(지암) 남덕우
6. 제 35 호 - 한국 해운업의 몰락?
7. 제 40 호 - 1990 년대, 위기에 빠진 폭스바겐을 살린 것은?
8. 제 42 호 - 우유야! 너는 왜 이렇게 비싼거니?
9. 제 46 호 - 한국에 트럼프가 산다!
10. 제 47 호 - 중립외교? 뒷북외교?
11. 제 54 호 - 총체적 위기의 실상(1) - 금융·외환위기의 엄습
12. 제 55 호 - 총체적 위기의 실상(2) - 4 차 산업혁명의 도래
13. 제 56 호 - 총체적 위기의 실상(3) - 중국 경제의 불안정
14. 제 57 호 - 총체적 위기의 실상(4) - 노인 경제국가로의 변화
15. 제 58 호 - 총체적 위기의 실상(5) - 동북아 지정학적인 위협
16. 제 59 호 - 인공지능시대, 대한민국 내일은 없다고요?
17. 제 62 호 - 한국 근현대사의 올바른 인식
18. 제 63 호 - 총체적 위기의 극복 - 언론개혁
19. 제 64 호 - 총체적 위기, New Normal 시대가 도래하다
20. 제 65 호 - 총체적 위기의 극복 - 노동시장 개혁
21. 제 73 호 - 4 차 산업혁명, 경쟁자는 로봇만이 아니다 미국의 근로자도 포함!
22. 제 74 호 - 2017 년 대한민국의 위기 파헤치기
23. 제 75 호 -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 대처 개혁에서 배우다
24. 제 76 호 - 대한민국의 성공신화,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25. 제 77 호 - 산업혁명 이해하기 - 제국주의와 보호무역 대공황과 전쟁

26. 제 78 호 -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대한민국의 미래일까?
27. 제 79 호 - 일해라! 국회! 국회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28. 제 87 호 - 부당하게 낮은 임금? 일하기 싫어!
29. 제 89 호 -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말자
30. 제 90 호 - 포퓰리즘이 판치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31. 제 92 호 -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32. 제 103 호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33. 제 139 호 - 보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한다
34. 제 140 호 - 보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 (2)
35. 제142호 - 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국가의 시장개입은 실패하고 있는가
36. 제143호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을까?
37. 제145호 - 추락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경제
38. 제153호 - 보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 보수의 정체성
39. 제 154 호 - 보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 새로운 실용적인 정책
40. 제 155 호 - 보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 왜 보수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되었을까요?

## 선진화 카드뉴스 2: '창조적 파괴' 이끄는 기업가 정신

1. 제44호 - 20세기를 살아간 21세기형 CEO. 호암 이병철 삼성 회장.
2. 제 33 호 - 불굴의 벤처사업가 구인회 LG 회장
3. 제23호 -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4. 제 24 호 -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5. 제 27 호 -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믿고 존중한다. 허준구 LG 건설 회장.
6. 제 30 호 - 관점을 바꿔 세상을 보세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7. 제 39 호 - 신뢰로 일군 성공. 조중훈 한진 회장
8. 제 45 호 - 애국심으로 만든 기업 鶴麓(학록) 류찬우

## 선진화 카드뉴스 3: 우리가 몰랐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1. 제29호 - 우리가 몰랐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曉州 허만정 선생
2. 제 36 호 - 어느 재벌의 독립운동. 조흥제효성 회장
3. 제 38 호 - 96 명을 구한 용기. 전재용 선장
4. 제 41 호 - 어느 부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김항덕 중부도시가스 회장, 이해원 중부재단 이사장
5. 제 112 호 - 분열의 대한민국, 어떻게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6. 제 150 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

#### 선진화 카드뉴스 4: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의 길

1. 제1호 - 내가 죽은지 아무도 몰랐네요
2. 제2호 - 더 이상 우리를 따라하지 마세요
3. 제3호 -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아시나요?
4. 제4호 - “관비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려라”
5. 제5호 - 영어, 100년 전 선생님 구합니다.
6. 제6호 - 우리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극을 주세요
7. 제8호 - 그 사이에 북한이 변했네요.
8. 제9호 - 장발장이 되어버린 어르신
9. 제10호 - 필리버스터! 공정하게 요약정리 해드립니다.
10. 제12호 - 이 사람, 뒤통수 맞기 30일 전
11. 제13호 - 개성공단 예견된 실패
12. 제15호 - 알파고 뿐만 아니다.
13. 제16호 - 과거를 바꾸는 사람?
14. 제17호 - 평화를 위해 투쟁한 '안중근'
15. 제18호 - 사이버테러방지법 누구냐 넌?
16. 제20호 - 난 내 아이에게 뒷모습만 기억되는 엄마였어.
17. 제21호 - 투표용지 2장의 비밀

18. 제22호 -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어떻게 해야하나요?
19. 제25호 -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정신, 관용
20. 제26호 - 돈이 많이들어야 좋은 결혼식 인가요?
21. 제37호 - 깨진 유리창 법칙
22. 제43호 - 그 많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23. 제48호 - 대한민국 엄마 아빠를 위한 나라는 없다
24. 제49호 - 한국의 스포츠는 메달만을 위한 것인가?
26. 제 50 호 - 흔들리는 한국 자본주의
27. 제 51 호 - 헬조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8. 제52호 - 죽음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병, 그 원인은?
29. 제53호 -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대한민국
30. 제67호 - 접화군생 - 인공지능
31. 제68호 -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32. 제82호 -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한국에서는 이제불가?
33. 제86호 - 20대 청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34. 제91호 -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35. 제93호 -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희망!
36. 제122호 - 자연과 문화유산을 만나다/Encountering Nature and Cultural Heritage
37. 제147호 -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
38. 제148호 - 새로운 리더의 덕목: 실용적인 문제탐색 능력

### 선진화 카드뉴스 5: 선진시장경제시스템 확립

1. 제7호 - FDI 유치를 통한 한국형 클러스터 발전
2. 제96호 - 선진시장경제시스템 확립-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
3. 제101호 - 선진시장경제시스템확립 - 정부 규제의 역할
4. 제104호 - 우리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5. 제108호 -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

6. 제111호 - 분열의 대한민국, 어떻게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 글로벌 시스템의 구축
7. 제116호 - Open System의 구축: FTA와 FDI의 두개의 축
8. 제117호 - 성장동력 소진의 결정적 요인: FDI불균형의 심화
9. 제118호 -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 I: 경제시스템의 효율화
10. 제133호 -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 3.1운동 정신의 부활에서 찾는 '패러다임' 전환: 성장과 분배의 한국적 선순환 모델
11. 제144호 - 어떻게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4대 부문 개혁
12. 제149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13. 제152호 - 코로나 위기 이후의 저성장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규제철폐를 통한 자유시장경제구축

## 선진화 카드뉴스 6: 분배양극화 해소

1. 제 14 호 - 무상복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눈다.
2. 제 71 호 - 왜 미국인들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졌을까?
3. 제 72 호 - 불평등의 세계적인 상황은 어떠할까요?
4. 제 81 호 - 세금과 기회의 제공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5. 제 83 호 - 피라미드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는 자본
6. 제 85 호 -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성의 악순환
7. 제 88 호 - 건강한 불평등이 필요하다
8. 제94호 - 서서히 드러나는 덴마크의 존재감
9. 제98호 - 덴마크 황금 삼각형 모델-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모두를 잡아야 한다.
10. 제119호 -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 II: 학습복지국가의 건설
11. 제120호 -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 III: 학습복지 재원조달 시스템
12. 제124호 - 왜 심각한 불평등이 문제인가? 국가경제의 불안정성 증폭
13. 제125호 - 왜 심각한 불평등이 문제인가?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감소
14. 제126호 -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효율성을 희생시켜야 할까? 효율성과 형평성의 보완관계
15. 제127호 - 왜 심각한 불평등이 문제인가? 민주적 정치과정의 파괴

16. 제128호 - 왜 심각한 불평등이 문제인가? 법치주의의 훼손
17. 제129호 - 왜 심각한 불평등이 문제인가? 격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18. 제135호 - 유연안정성으로 이뤄내는 노동시장의 선순환
19. 제146호 - 유한차별계급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 선진화 카드뉴스 7: 경제적 지대추구 행위

1. 제 69 호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불평등 진단
2. 제 70 호 - 게임을 시작하지! 그런데... 규칙도 심판도 네가 정한다고?
3. 제 80 호 - 정부야 나서줘! 불평등을 타파해줘! 지대추구가 문제야!
4. 제 84 호 - 경제적 지대 추구를 왜 막아야 하는가?
5. 제97호 - 실업문제해결의 유일한 답- 노동시장 개혁
6. 제99호 - 귀족노조-대한민국 경제만병의 근원
7. 제105호 - 한국 경제개혁의 핵심 - 경제적 지대추구 타파
8. 제114호 - 기득권층의 특권양보: 지대추구행위의 근절
9. 제123호 - 한국의 왜곡된 시장경제와 불평등의 심화
10. 제130호 - 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지대추구행위
11. 제141호 - 기득권층의 경제적 지대추구가 낳은 참사, '조국 게이트'
12. 제151호 - 코로나 위기 이후의 양극화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대추구행위 타파로 해소하자

## 선진화 카드뉴스 8: 공동체 정신 회복

1. 제11호 -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2. 제 60 호 - 위대한 유산
3. 제61호 - 정신문화 혁명 어떻게 이뤄낼까요?
4. 제66호 - 접화군생
5. 제95호 -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6. 제100호 - 당신은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기댈 사람이 있습니까?
7. 제102호 - 짜장면으로 행하는 공동체정신
8. 제106호 - 톤즈에서 이어진 공동체 정신
9. 제107호 -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를 위한 상 - LG 의인상
10. 제109호 - 분열의 대한민국, 어떻게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 종교심의 발현
11. 제110호 - 분열의 대한민국, 어떻게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 패자도 동화시키는 개방성
12. 제113호 - 포용적 공동체 정신의 발현
13. 제115호 - 한국 특유의 정신문화유산의 위대한 콘텐츠
14. 제121호 -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 IV: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15. 제131호 -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 3.1운동 정신의 부활에서 찾는 '패러다임' 전환: 3.1운동이 남긴 공동체 정신
16. 제132호 -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 3.1운동 정신의 부활에서 찾는 '패러다임' 전환: 분열과 방황의 난파의 현실
17. 제134호 -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 3.1운동 정신의 부활에서 찾는 '패러다임' 전환: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18. 제136호 - 천년제국 신라에서 배우는 국가발전 원동력: 국가관의 순화
19. 제137호 - 천년제국 신라에서 배우는 국가발전 원동력: 화랑제도의 창설
20. 제138호 - 천년제국 신라에서 배우는 국가발전 원동력: 선덕여왕의 리더십

## 선진화 카드뉴스 9: 경제학 멘토링

1. 제1호 - 한국경제의 돌파구
2. 제 2 호 - 한국경제위기탈출의 해법
3. 제 3 호 -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안녕한가요?
4. 제 4 호 - 선진사회 만들기, 준법정신으로부터!
5. 제 5 호 - 우리의 정신, 우리의 뿌리, 한글!
6. 제 6 호 - '유리천장' 깨뜨리기
7. 제 7 호 - 올바른 역사 교육 미래로의 도약
8. 제 8 호 - 창조경제도약의 걸림돌, 반기업정서

9. 제 9 호 - 복지, 밀빠진 독에 물붓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
10. 제 10 호 -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사회
11. 제 11 호 - 창조경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12. 제 12 호 - 격진(激震)의 진원지, MEDIA
13. 제 13 호 - 운동경기로 배우는 리더십
14. 제 14 호 - 동양고전을 통해 살펴보는 올바른 배움의 방향
15. 제 15 호 - 우리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자
16. 제 16 호 -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17. 제 17 호 - 시장경제와 정부규제의 조화
18. 제 18 호 - 복지도 이제는 투자다!
19. 제 19 호 - 대한민국 갈등의 뿌리를 공통가치 추구로 뽑아내자
20. 제 20 호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21. 제 21 호 - 반기업정서를 버리고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22. 제 22 호 -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수호해나갈까요?
23. 제 23 호 - 선진사회의 시장경제, 올바른 이기심의 시장규칙 발현을 통해 창달!
24. 제 24 호 - 제 2 의 한강의 기적, 강력한 리더십 육성으로
25. 제 25 호 - 국민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한류
26. 제 26 호 - 급변하는 동북아 대외정세를 이겨내는 힘
27. 제 27 호 - 삼포세대라는 뫼비우스의 띠,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28. 제 28 호 - 구동존이(求同存異), 대일외교의 실리적 해법
29. 제 29 호 - 남을 위해 일해야 내가 이익을 얻는 시장경제
30. 제 30 호 - 글로벌 경제전쟁시대, 승리의 열쇠는 노동문제해결에 있다!
31. 제 31 호 - 잠재 성장률 성장을 통한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
32. 제 32 호 - 대한민국의 선진경제창조, 새마을 운동의 푸른 물결을 교훈으로!
33. 제 33 호 - 선진 복지, 사회구성원과의 협업으로!
34. 제 34 호 -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35. 제 35 호 - 선진화의 큰 걸림돌, 국회선진화법
36. 제 36 호 - 국민정서법을 인정해야 하는가?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바라본 법률문화의 선진화

37. 제 37 호 - 비정규직의 경제학
38. 제 38 호 - 시장 신호에 역행하는 사회복지 추구형 경제정책
39. 제 39 호 - '심리학'으로 보는 헬조선의 원인
40. 제 40 호 - 호가경쟁과 수요공급의 법칙
41. 제 41 호 - 가격신호를 이용하는 시장의 분업주도
42. 제 42 호 - 가격신호를 왜곡하고 거부하면?
43. 제 43 호 -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누가 결정할까?
44. 제 44 호 - 정부는 먹고 살기 위한 권리를 지켜줘야 할까?
45. 제 45 호 - 복수의 화신 시장
46. 제 46 호 - 공정거래와 카르텔
47. 제 47 호 - 기업합병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48. 제 48 호 - 협상력을 높이는 "진입장벽"
49. 제 49 호 - '독과점' 올바르게 이해합시다!
50. 제 50 호 - 카우보이 자본주의 VS 신사 간 경쟁
51. 제 51 호 - 유통과정 혁신 피할 수 없다면 이용해라
52. 제 52 호 - 정보의 비대칭성
53. 제 53 호 -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법
54. 제 54 호 - 분양가상한제로 본 가격상한제의 경제학
55. 제 55 호 -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
56. 제 56 호 - 역선택&레몬시장
57. 제 57 호 - 지도노동과 피지도노동
58. 제 58 호 - 경영권과 노동시장의 경쟁
59. 제 59 호 - 경제개발과 기업가
60. 제 60 호 - 선별적 기업육성과 재벌체제의 형성
61. 제 61 호 - 재벌체제의 성취와 문제
62. 제 62 호 -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63. 제 63 호 - 일자리 나누기의 시장원리
64. 제 64 호 - 외국인 투자의 경제학

65. 제 65 호 - 사치성 서비스산업과 일자리
66. 제 66 호 - 일자리와 일거리
67. 제 67 호 - 이기심과 재산권 보호
68. 제 68 호 -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
69. 제 69 호 -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시장 수준
70. 제 70 호 - '워싱턴 합의' 의 실패
71. 제 71 호 - 거래비용의 경제학
72. 제 72 호 - 자연독점과 기본설비원칙
73. 제 73 호 - 외부성의 시장실패
74. 제 74 호 - 조세 보조금 방식과 코즈협상
75. 제 75 호 - 코즈협상과 거래비용
76. 제 76 호 - 공유자원의 비극
77. 제 77 호 - 반(反)공유재의 비극
78. 제 78 호 - 지식재산권과 강제면허
79. 제 79 호 - 배출권 시장의 '캡거래'
80. 제 80 호 - 권리금의 본질
81. 제 81 호 - 효율성과 공정성
82. 제 82 호 - 공정성의 정치경제학
83. 제 83 호 - 성과의 평등과 기회균등
84. 제 84 호 - 생산활동의 부가가치
85. 제 85 호 - 생산성과 부가가치의 분배
86. 제 86 호 - 교차보조의 경제학
87. 제 87 호 -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경제학
88. 제 88 호 - 사회적 보조의 경제학
89. 제 89 호 -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90. 제 90 호 - 시장 신호와 충돌하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91. 제 91 호 - 시장과 사회복지추구가 함께 가려면
92. 제 92 호 - 공공재와 편승

93. 제 93 호 - 공공재의 코즈협상
94. 제 94 호 - 탄소세의 경제학
95. 제 95 호 - 세금의 경제학
96. 제 96 호 - 세금부담, 누가 얼마나?
97. 제 97 호 - 법인세와 투자유치
98. 제 98 호 - GDP 와 GNI
99. 제 99 호 - 실질 GDP 와 실질 GNI
100. 제 100 호 - 연쇄가격 실질 GDP
101. 제 101 호 - 물가지수와 물가변동
102. 제 102 호 - 화폐의 신비
103. 제 103 호 - 유동성의 본질
104. 제 104 호 - 도대체 화폐란 무엇인가?
105. 제 105 호 - 통화 수요의 결정 요인
106. 제 106 호 - 통화량의 결정
107. 제 107 호 - 한국은행의 어음재할인과 공개시장조작
108. 제 108 호 - 금리인상과 출구전략
109. 제 109 호 - 균형 GDP 의 결정과 총수요
110. 제 110 호 - 투자와 불황
111. 제 111 호 - 총수요관리정책
112. 제 112 호 - 케인시안과 통화주의자
113. 제 113 호 - 고용률과 실업률
114. 제 114 호 - 고용창출과 총수요관리정책
115. 제 115 호 -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116. 제 116 호 - 스태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117. 제 117 호 - 경제성장과 그 시작
118. 제 118 호 -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회적 분업의 고도화
119. 제 119 호 - 경제성장과 요소생산성
120. 제 120 호 - 잠재적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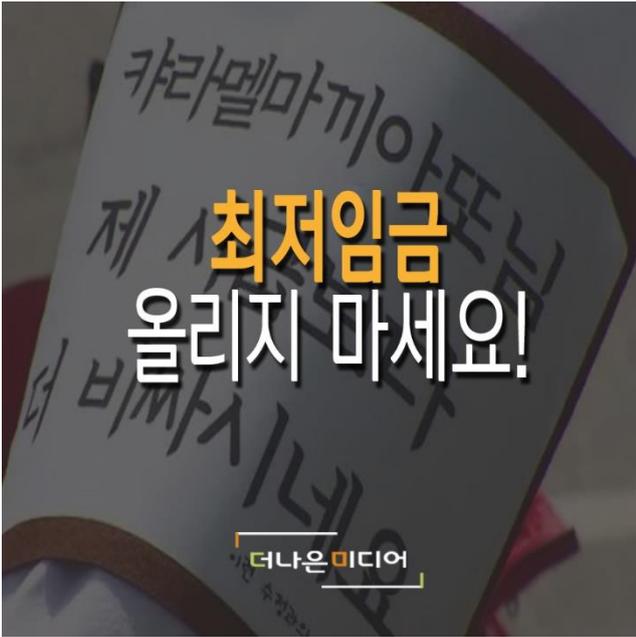
121. 제 121 호 - 채권가격 이자율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
122. 제 122 호 - 채권과 주식
123. 제 123 호 - 주가 시가총액 그리고 자본조달
124. 제 124 호 - 위험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금융상품
125. 제 125 호 - 상품시장과 금융시장
126. 제 126 호 - 금융시장과 약육강식의 정글
127. 제 127 호 - 금융이 무너진 실물경제
128. 제 128 호 - 비교우위의 국제무역
129. 제 129 호 - 자유무역의 전개
130. 제 130 호 - 신용장과 선하증권
131. 제 131 호 - 외환보유고와 환율정책
132. 제 132 호 - 국제수지와 외화보유액의 변화

# 선진화 카드뉴스 1:

## 자유주의·시장경제이념의 확산

세계경제가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수출로 성장해온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모으기는커녕 한국사회에서는 사이버 좌파언론과 종북·운동권 세력에 의해 반자유주의·반시장경제이념이 판을 치면서 한국경제와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선진화포럼의 차세대 지도자(NGL)들은 한국경제와 기업들의 생존,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유주의·시장경제이념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한국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1. 제 19 호 - 최저임금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일 년에 15,000불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더 나은 미디어



더 나은 미디어



더 나은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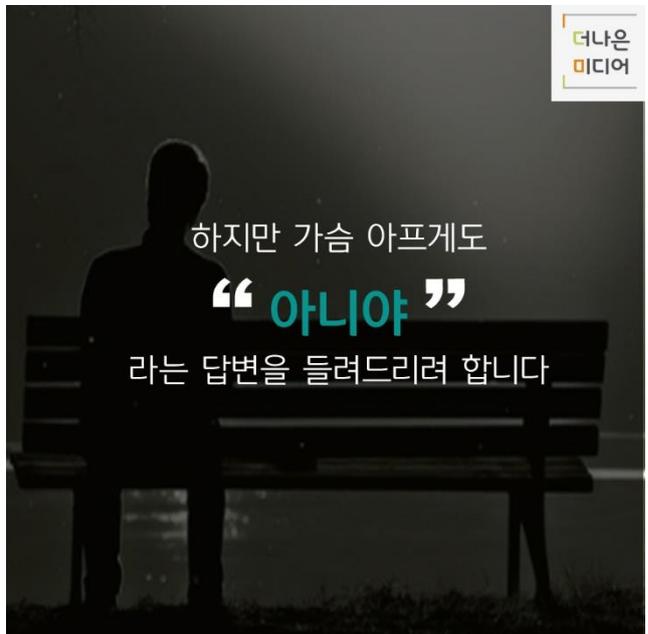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5 국정연설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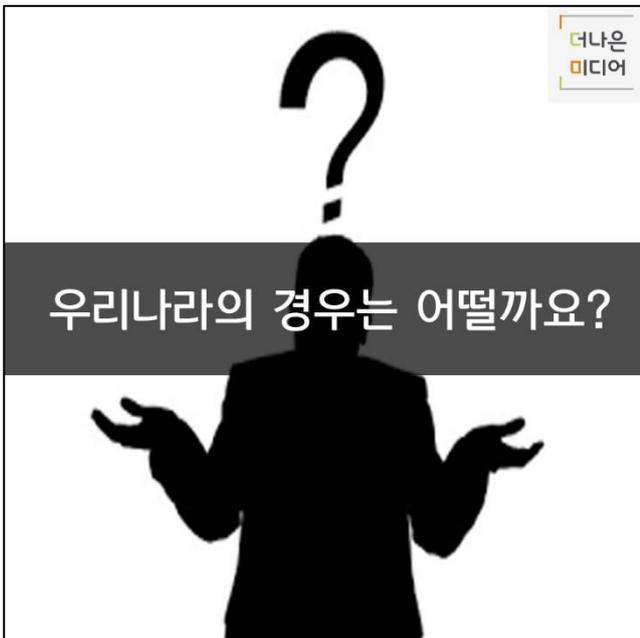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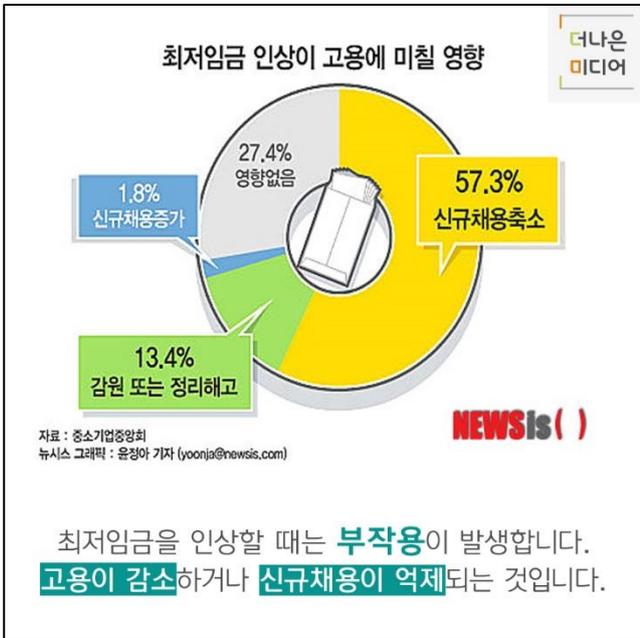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풍족해야 정당한 것 아닐까요? 우리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 맞는 말이지!’

라고 동의하고 싶지만

더 나은 미디어







스크립트: 권순형(17 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미지: 이주명(17 기,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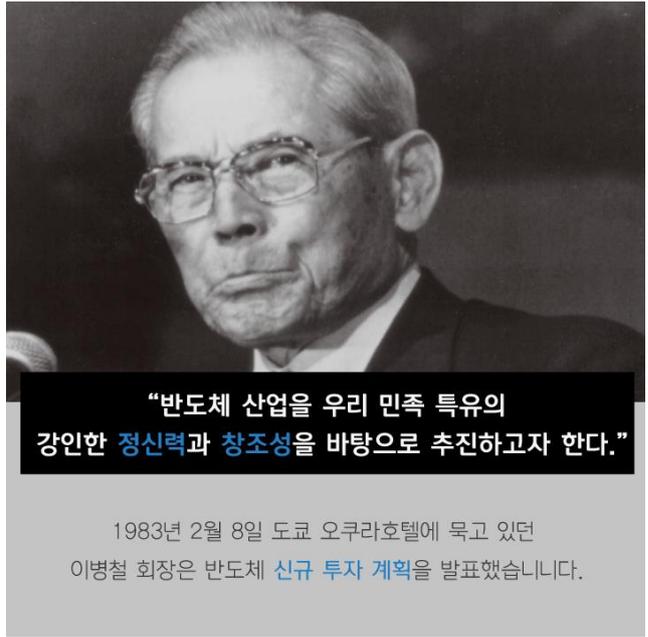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 선진화 카드뉴스 2:

### '창조적 파괴' 이끄는 기업가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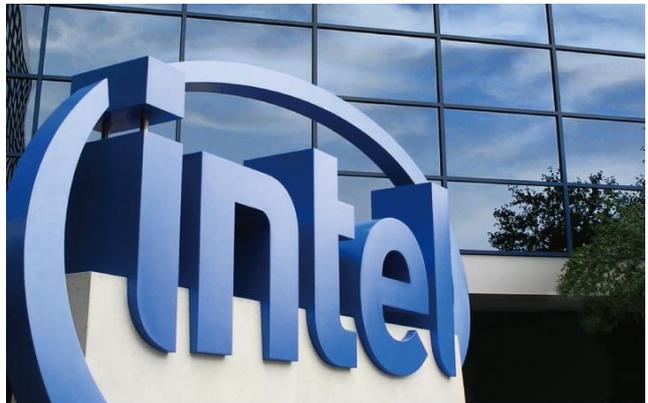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 년을 내다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며, 그 하락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일 것으로 OECD (2014 년 5 월)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의 절벽'에 부딪히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기업가 정신의 상실입니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전 산업에 걸친 광범위한 장기침체의 '뉴 노멀'시대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할 만한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한국에는 과거 이병철 삼성 창업주, 구인회 LG 창업주, 정주영 현대 창업주 등 기업가 정신의 표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 선진화포럼의 차세대 지도자(NGL)들이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기업가 정신을 되찾는 운동의 하나로, 기업가 정신의 모범 사례들을 카드 뉴스 시리즈로 제작해서 한국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 1. 제 44 호 - 20 세기를 살아간 21 세기형 CEO. 호암 이병철 삼성 회장



## “도쿄선언”

당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던  
64K D램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는 이 회장의 선언에  
정부와 언론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 “이병철 회장은 과대망상증 환자다.”

당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도쿄선언은 과대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엔 이미 1974년 반도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삼성 이사**(현 삼성그룹 회장)가  
사재를 털어 **한국반도체**를 인수했지만  
손목시계에 쓰이는 단순한 칩을 생산하는 정도였고,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 “반도체가 뭐꼬?”

처음 **이건희** 이사가 삼성반도체를 설립했을 때만 해도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성반도체의 적자가 계속되자 답답했던 이병철 회장은  
일본 모 회사에 반도체 기술을 전수받으려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 “반도체가 뭐길래 내 요청을 거절하노?”

순간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때부터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보스턴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병철 회장은  
IBM, GE, HP 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사업은 나의 **마지막 사업**이자  
삼성의 **대들보**가 될 사업입니다.”

그는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 될거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반도체, 컴퓨터 사업팀을 꾸렸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도쿄선언을 하기까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기위한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선언 직후 64K D램 개발에 더욱 몰입**했습니다.

“**64K D램을 완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12월 12일,  
드디어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10년 이상 뒤쳐졌던  
기술 수준을 2~3년 차이로 좁힌 것입니다.

“  
1984년 10월 256K D램 개발 성공  
1986년 7월 1메가 D램 개발 성공”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빠르게 성장해  
1987년에는 세계 반도체 업계 9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92년 디지털 메모리(D램)분야 세계 1위에 오르면서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흥내도 낼 수 없게 말입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창조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립트/이미지: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 선진화 카드뉴스 3:

### 우리가 몰랐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있어서 최하위인 것입니다. 모두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공동체의식'의 결여에서 온 것입니다. 이에 저희 선진화포럼의 차세대 지도자(NGL)들이 한국전통사회의 미덕이 되어 왔던 '공동체의식'을 되찾는 운동의 하나로, 알려지지 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서 카드 뉴스 시리즈로 제작해서 한국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 1. 제 29 호 - 우리가 몰랐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曉州 허만정 선생



“허부자 댁에서 쌀을 나눠준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경상남도 진주 승산마을 허부자 댁에 사람들이 쌀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승산마을 허부자는 누굴까요?



진주 최고의 부자 효주 허만정 그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쌀을 넉넉히 나눠주었기에 항상 그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마당에 쌓아 작은 돌산을 쌓았고  
사람들은 그 돌산을 금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5  
허만정 선생은 작은 돌산을 통해  
사람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려 한 것 입니다.



더 나은 미디어

허만정 선생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미디어

선생은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인 지신정 허준과 최준, 안희재 선생들과 함께 **백산상회**를 세워 **임시정부**를 후원했습니다.



더 나은 미디어

“나라를 되찾으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을 통해 독립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1925년 **일신여고**(현 진주여고)를 세웠습니다.



더 나은 미디어

그리고 해방 이후 **구인회 전 LG 회장**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어 **LG와 GS**의 창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더 나은 미디어

의로운 일에 아낌이 없었던 **허만정 선생**의 정신은 **그 후손들에게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더 나은 미디어

**허만정 선생**의 손자인 **허창수 GS회장**은 2006년 **남촌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디어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손자인 허동수 GS칼텍스 회장도 2015년 동행복지재단을 세우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아 조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더 나은 미디어

재산을 모으면서도 나눔에 인색치 않았던 허만정 근검, 절약, 나눔의 DNA가 이어졌기에 그의 자손들도 국내 최고의 기업을 키우고 사회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4

더 나은 미디어

근검, 절약, 나눔

우리 주변에도 근검절약 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구성, 편집: 김한준 미디어탐방

스크립트/이미지: 김한준(15기,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 선진화 카드뉴스 4:

###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운동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 등 사회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정신적 삶이 피폐화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률과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며,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사회갈등 수준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저성장과 분배의 양극화 시대에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체의식'의 문화유전자가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군신화의 홍익인간 정신, 불교의 자비·평등, 유교의 충·효·인,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평등주의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선진화포럼의 차세대 지도자(NGL)들이 한국전통사회의 미덕이 되어 왔던 '공동체의식'을 되찾는 운동의 하나로, 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에 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한국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 1. 제 1호 - 내가 죽은지 아무도 몰랐네요



비탈길이 가파른 부산 초읍동의 한 다가구 주택.  
67살 김모 할머니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월세가 몇 년 밀렸지만 보증금이 남아  
집주인은 숨진 사실을 모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할머니가  
다른 사정으로 집을 비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선 '왜' 몰랐을까요?

6 kf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할머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생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7 kf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Better Life Index (BLI) 2015.6.2."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공동체' 영역은 무려 **36위**  
가입국 중 **최하위**입니다.

8 kf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급증하는 독거노인 가구**  
(단위=%)

2010년 6.1  
2015년 7.4  
2020년 8.8  
2025년 10.7  
2030년 13.0

\*전체 가구 대비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 자료=통계청

[통계청]

금융위기 이후 물질적 토대에만 신경 쓴 결과,  
매물찬 경쟁주의에 압도되어  
**한국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9 kf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이런 슬픈 이야기가 기사에 나올 때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위기의 **오늘**,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식** 을  
회복해야 합니다.

10 kf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 입니다.  
-Mother teresa

빈자의 성녀라 불리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든 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1 kf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홍익인간 (弘益人間)**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단군왕검

인간본심의 **순수한 인간애**를 발휘하여  
우리 주변 사람부터 **챙기고 사랑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는 뜻입니다.



스크립트: 송소담(15 기,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선진화 카드뉴스 5:**

**선진시장경제시스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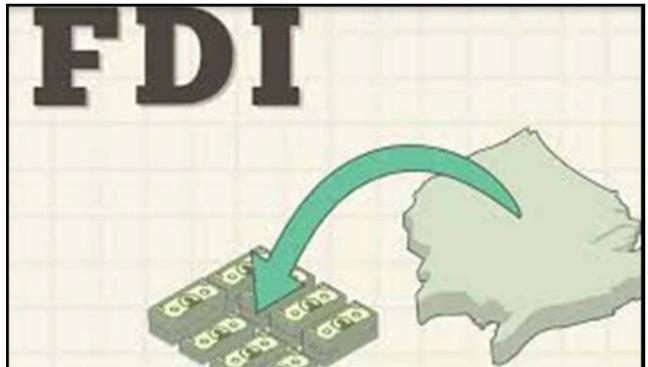
# 1. 제 7호 - FDI 유치를 통한 한국형 클러스터 발전



국가경제에 대한 개념 중에 GDP와 GNP가 있습니다. GDP는 흔히 국내총생산, GNP는 국민총생산이라 합니다. 세계각국이 GNP를 지표로 삼다가 GDP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국경 없는 경제전쟁**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인데, 자국 내의 **외국인의 생산**이라도 나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한 것입니다.



**FDI** (외국인 직접투자)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에 투자한 자본, 설비** 등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해낼 **구원투수**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FDI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나라는 단연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수와 높은 구매력 등으로 매력적인 시장임을 자처하며 세계의 FDI를 끌어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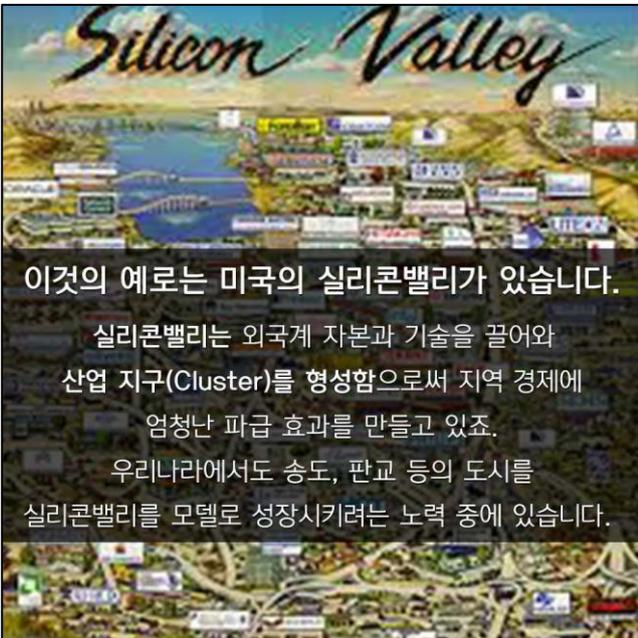
중국의 FDI 유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주로 **서비스산업의 FDI**를 끌어모으면서 자국의 산업구조우월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정부부처인 상무부를 통해 앞으로도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우위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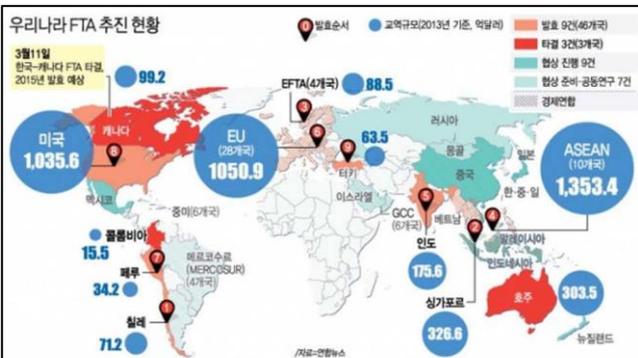
**이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뤄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FDI가 단순한 자본 유치가 아닌, 자국 내의 외국계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예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외국계 자본과 기술을 끌어와 산업 지구(Cluster)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송도, 판교 등의 도시를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성장시키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FDI유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상에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장점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유럽, 중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한국에 투자할 경우 FTA를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에 **관세 없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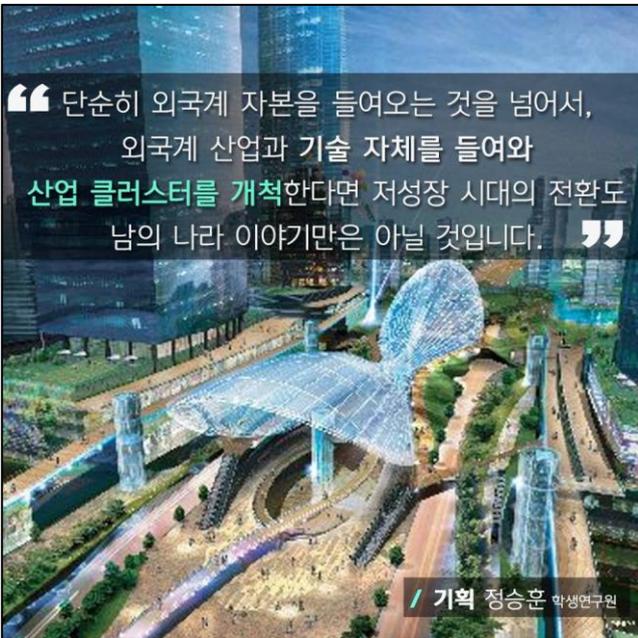
무엇보다 큰 한국의 매력은 **중국과 미국의 중간지대**로서 무역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십년 내로 패권다툼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두 세력의 완충지대**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낮은 기업선호도, 각종 규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FDI유치에 발목을 잡고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빨리 **개선해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FDI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약한 내수시장, 없다시피한 천연자원 등  
 국가경제운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핍은 우리에게  
 '세계로 진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활로를 여는 길이다!'  
 fk는 공감대로 이어져나가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이미지: 정승훈(17 기, 단국대학교 철학과)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선진화 카드뉴스 6:**

**분배양극화 해소**

# 1. 제 135 호 - 유연안정성으로 이뤄내는 노동시장의 선순환



현대자동차에 이어 SK 그룹도  
기존의 신입사원 공채 방식을 축소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 / 14



이 소식에 한숨을 내쉬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 / 14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까요?

3 / 14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에 있습니다



황금 삼각형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

# Golden Triangle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대한  
실업 보장

황금 삼각형의 세 축은 '유연한 노동시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대한 실업 보장'입니다



'유연한 노동 시장'은 **활발한 고용과 해고**를 의미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관대한 실업 보장'은 **실업 보험, 실업 급여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뜻합니다



황금 삼각형의 세 축이 함께 완성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루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은 노동시장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며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고용과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대기업에서의 수시 채용 전환은 이런 필요를 보여주고 있죠



다른 측면에서는 **해고된 노동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무적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인해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망을 확보**해주어야 하죠

ki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또한 정부는 **훈련과 교육을 통한  
실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

12 / 14

ki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4TH INDUSTRIAL REVOLUTION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학습 복지의 기회**는 필수적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13 / 14

ki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모순된 두 가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기업과 노동자의 대타협**을 통해  
황금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14 / 14

ki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글 : 김윤형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스크립트 : 윤다영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이미지 : 권순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지도 :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글: 김윤형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스크립트: 윤다영(18 기,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이미지: 권순형(17 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선진화 카드뉴스 7:**  
**경제적 지대추구 행위**

# 1. 제 114 호 - 기득권층의 특권양보: 지대추구행위의 근절

선진화갤러리 제114호

**성장동력 잃은 대한민국,  
어떻게 글로벌 중상위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기득권층의 특권양보 :  
지대추구행위의 근절**

kt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 한국자본주의 체제의 3대 위기

### 1. 경제성장 위기: 잠재성장률의 추락



## 2.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의 심화

TRUST

- ① 임금격차:  
비정규직/정규직 44% (2018.6)
- ② 자산격차:  
상위 10%의 자산비중 66% (2015. 10)
- ③ 교육기회의 격차 (사교육비):  
상위 20% 가구/하위 20% 가구 9배(2016. 1분기)

ISSUE ILLUSTRATION

## 3. 국민윤리의 쇠락과 국론의 분열

공동체의식이 OECD국가 중 최하위

3 / 14

**불평등과 분열의 출발점은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지대추구행위입니다.**

'지대추구'란  
기득권층이 생산에  
기여한 것 보다 그들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터무니 없는 양을 뽑아  
내가는 행위입니다.

**Joseph E. Stiglitz**  
2011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 국회의 '규제' 폭주

폭증하는 의원 발의 법안 (단위:건)  
※ 20대 국회는 1월23일 기준

16대 국회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165	5728	1만 1191	1만 5444	1만 47

#### 특수활동이 국회판 카스트제도?

원내대표	- 4,000만~5,000만 원
상임위·특위 위원장	- 500만~600만 원
일반의원	- 0원

**의원입법을 통한 지대추구와  
특권 (무노동 유임금, 회기중 불체포)**

5 / 1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에 의한 지대추구

6 / 14

대기업 불공정 행위 유형

58.3% 26.4% 20.8%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비용 증가 납품단가 인하  
낙찰기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

하도급계약의 가장 큰 애로

49% 16% 9% 8%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반품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의한 지대추구

7 / 14

대기업노조, 공공노조, 언론노조, 금융노조 등의 특권, 파업권력과 협상력에 의한 지대추구행위

8 / 14

경쟁제한으로 인한 공기업의 낭비와 비효율성

부채 규모

기타공공기관: 13조원  
운영부채: 119조원  
공기업: 364조원

2017. 12. 기준

제도적 진입장벽을 통한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지대추구

9 / 14

경쟁제한(진입장벽과 행정규제)을 통한 교육·의료·금융·방송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지대추구

대학의 변신

대한병원협회

공정성 위반 제재 강화

10 / 14

배타적 독점적 특성으로 인한 전문 자격사의 지대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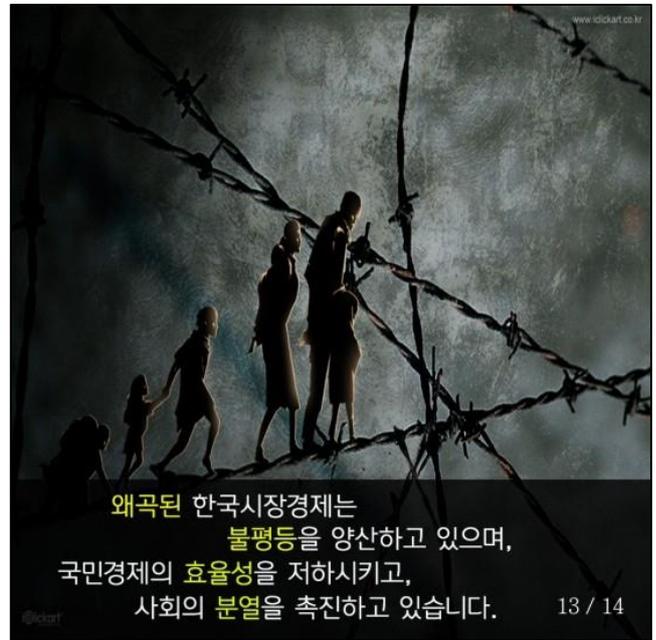
합격증서

의사면허증

합격증서

검측사예비시험 합격 확인서

14



www.kiprogress.org  
 한국심진화포럼

글 : 김윤형 <제3차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스크립트/이미지 : 권순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지도 :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Progress

Korea Progress

JIAM KFP ACADEMY

글: 김윤형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스크립트/이미지: 권순형(17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선진화 카드뉴스 8:**

**공동체 정신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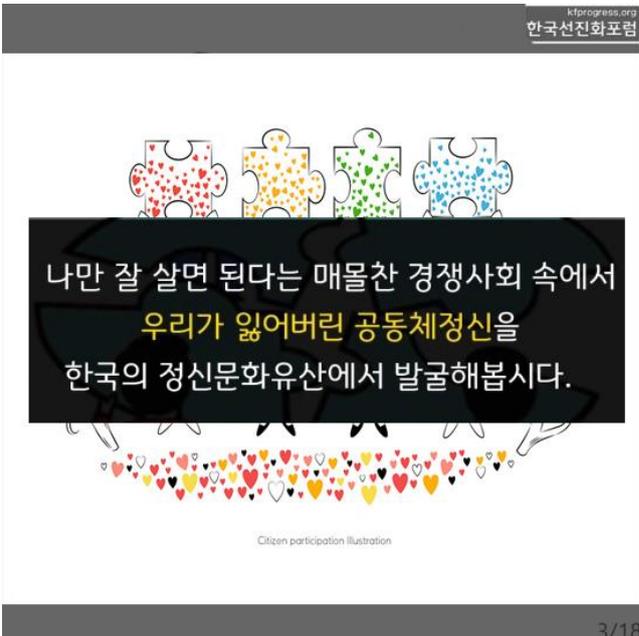
# 1. 제 115 호 - 한국 특유의 정신문화유산의 위대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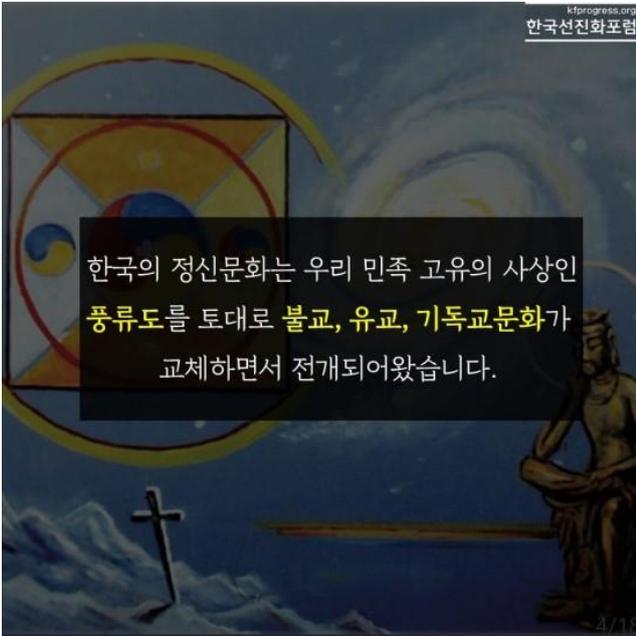


새로운 나라의 새 판을 짜기위한  
한국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개혁은  
기득권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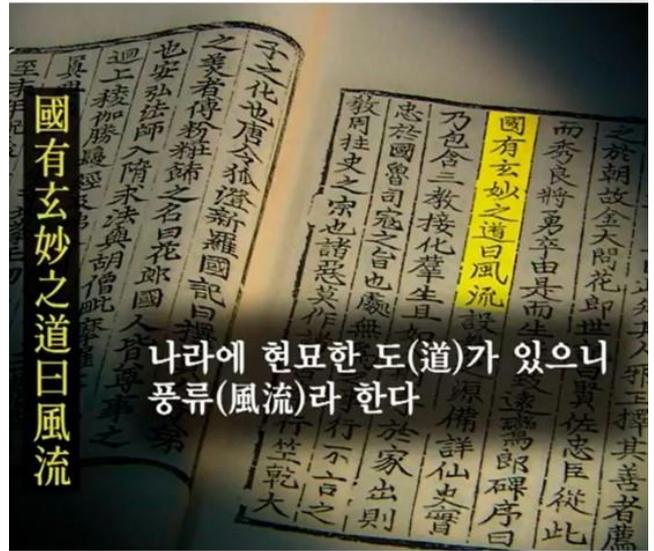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심성에 공동체 의식이 흐르고 있다면  
기득권층이 그들의 특권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열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하나로 융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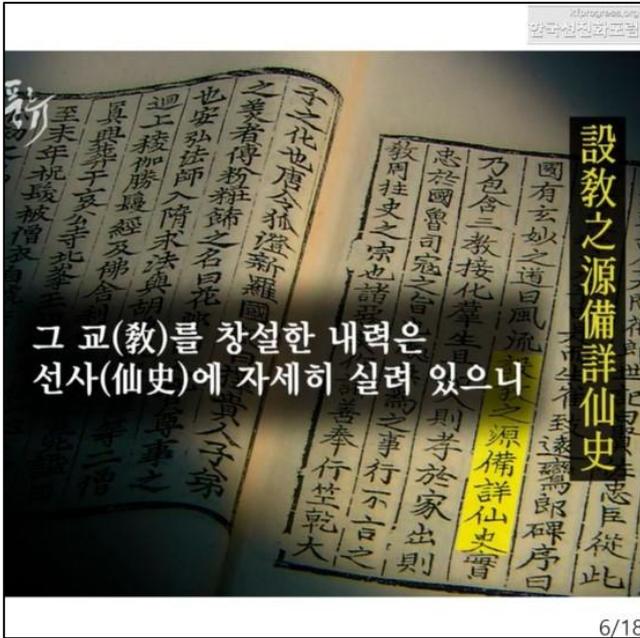


한국의 정신문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인  
풍류도를 토대로 불교, 유교, 기독교문화가  
교체하면서 전개되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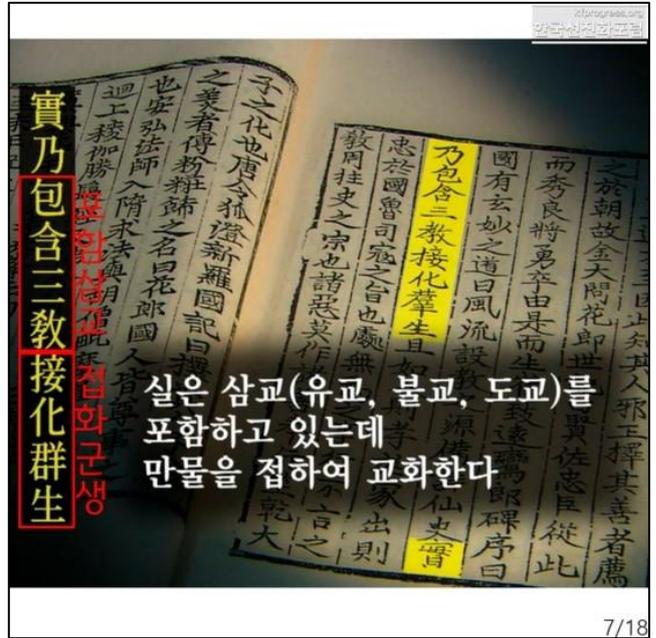
國有玄妙之道曰風流

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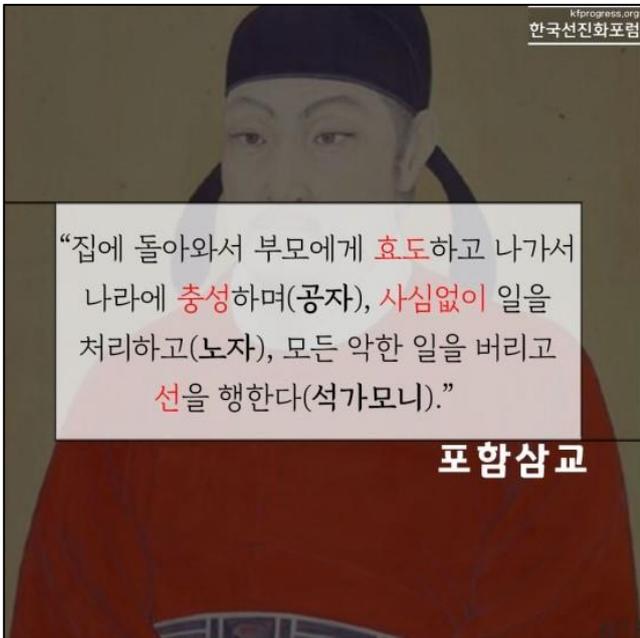
그 교(敎)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設教之源備詳仙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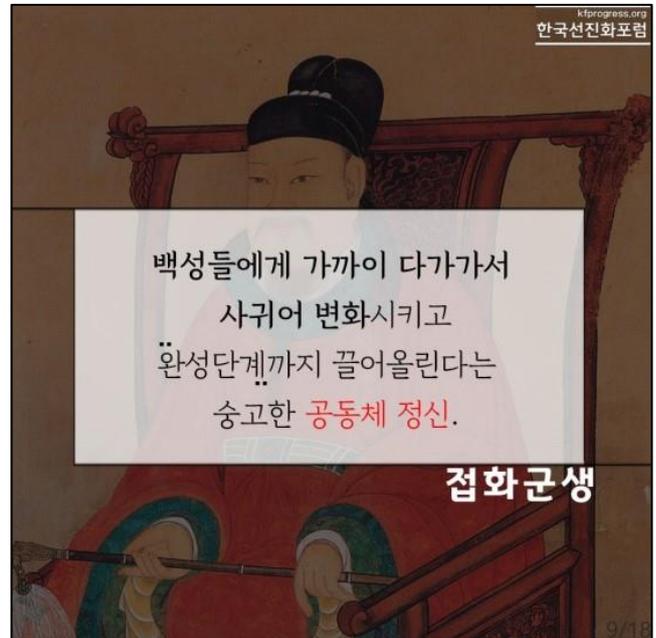
實乃包含三教接化羣生

삼교(유교, 불교, 도교)를  
실은 삼고 있는데 교화한다  
포함하 고 접하여 만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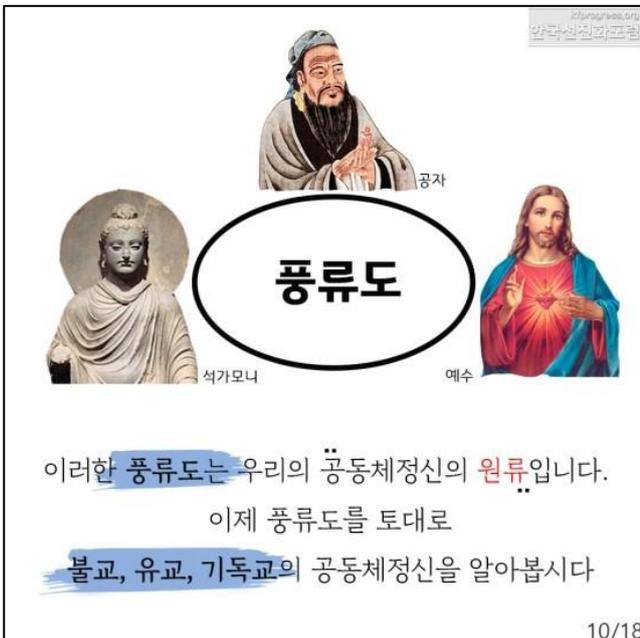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며(공자), 사심없이 일을  
처리하고(노자),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석가모니).”

포함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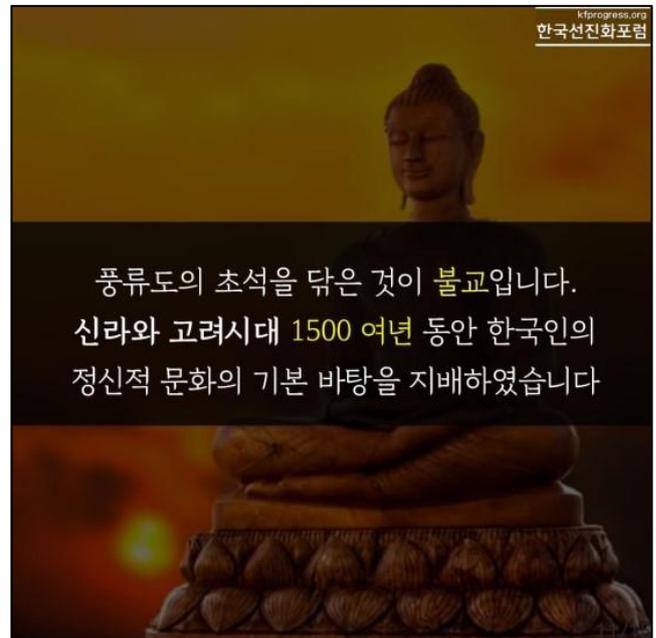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귀어 변화시키고  
환성단계까지 끌어올린다는  
숭고한 공동체 정신.

접화군생



이러한 풍류도는 우리의 공동체정신의 원류입니다.  
이제 풍류도를 토대로  
불교, 유교, 기독교의 공동체정신을 알아보시다



풍류도의 초석을 닦은 것이 불교입니다.  
신라와 고려시대 1500 여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적 문화의 기본 바탕을 지배하였습니다

## 화쟁(和諍)사상

다툼을 화합해 하나로 통하게 한다.  
독선에 빠지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라.



원효대사

## 화엄(華嚴)사상

一即多 多即一  
차별이나 적대 배척없이 모두 융합하고  
하나임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비심'



의상대사

## 북지칠 홍지문 지칠

"지"를 넘어가는  
시비지심  
물고 그릇물  
가릴 줄 아는 마음

조선조 500 여년 동안 한국의 정신문화를  
지배해온 유교는 극기복례\*를 본질로 합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하늘이 내린 덕성으로 돌아가라

## 남예칠 승례문 예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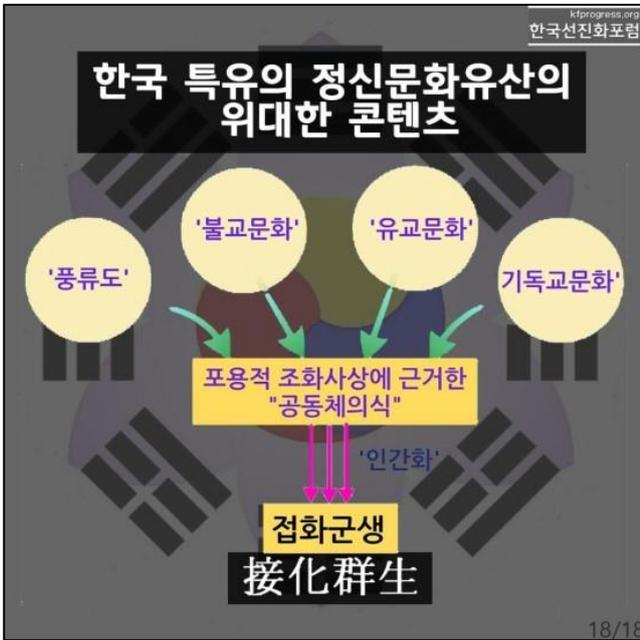
"예"를 숭상하는  
사양지심  
자신을 낮추고 경순하며  
남을 위해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충, 효를 근간으로 하는 오륜사상은  
인간협동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의  
문화적 기초가 됩니다.

기독교는 현대에 들어와서  
지난 200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문화에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정신의 근본은  
(1) 하나님의 생명존중사상  
(2) 인간의 청지기 사상\*  
(3) 역사공동체 의식입니다.

\*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존재가치 등이 오직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사상.



k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글 : 김윤형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스크립트 / 이미지 : 김한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도 :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JIAM  
KFP  
ACADEMY

Korea Progress

글: 김윤형 <문명사적 전환으로 가는 길>

스크립트/이미지: 김한솔(17 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

## 선진화 카드뉴스 9:

### 선진화 갤러리

어렵고 복잡한 경제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사이버 공간에 확산하고, 올바른 시장경제지식을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130 여 개의 선진화 갤러리를 온라인으로 게시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멘토링'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내용을 소재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1. 제 98 호 – GDP 와 GNI



kfprogress.org  
한국선진화포럼



한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합친 것이 그 나라의 그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s)입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국내 모든 기업으로부터 한 해 동안의 거래자료를 수합하여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것을 모두 합하는 방식으로 GDP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려면 생산에 사용한 중간재와 생산해낸 생산물이 반드시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합니다. 그해에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재고품은 팔린 제품의 가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 그해 말 현재 생산이 진행중인 반제품은 생산물과 중간재의 시장가격에 비추어 그 가치를 유추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해의 생산물에 포함합니다.



## 그러나

시장거래를 거치지 않는 생산물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발소에서 값을 치르고 하는 면도는 GDP에 포함되지만 집에서 직접 하는 면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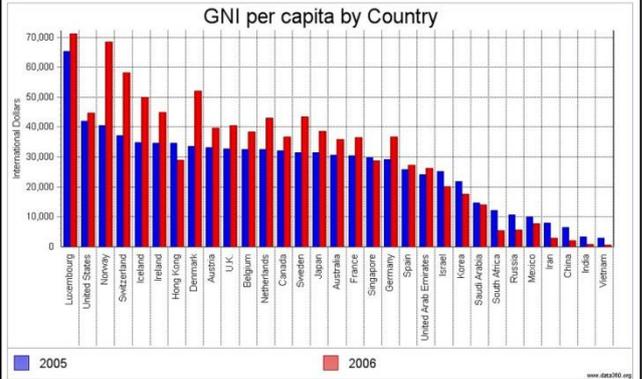
GDP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까지 포함하지만 이 부분은 외국인의 소득이므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하려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은 빼고, 그 대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입니다. GNI는 과거 GDP 대신 널리 쓰이던 GNP를 일컫습니다.

# GNI



GDP와 GNI를 각각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값으로 환산한 지표는 각국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데 널리 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GDP나 GNI는 모두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얻은 수치입니다.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경상가격 GDP, 또는 명목 GDP라고 합니다.



물가는 해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명목 GDP만으로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경제활동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명목 GNI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활동 규모, 또는 국민소득 수준이  
매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려면  
명목 아닌 **실질 GDP와 GNI**가 필요합니다.



**이승훈**

現 제15대 한국가스공사 사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선진화포럼 이사, 자유기업원 이사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글**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61강

**첨삭** : 이경한(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이미지** :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글: 이승훈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멘토링>

스크립트: 이경한(14 기,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이미지: 이주명(14 기,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지도: 김윤형 지암선진화아카데미 원장